

- 이화방어기제검사의 내용과 척도 -

I. 이화방어기제검사의 개발 배경 및 목적

이화방어기제검사는 개인의 자아방어기제들을 평가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객관적인 목록식 검사이다.

이 검사는 정상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보다 건강한 적응방식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적응상태를 개선시켜야 할 필요성에서 개발하게 되었다.

특히 이화방어기제검사는 예비문항 수집과정에서 속담을 바탕으로 하여 문항을 고안하였는데, 이는 가능한 한 검사문항이 한국인의 원래적인 행동과 사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검사 제작 과정을 통하여 한국인의 독특한 사고, 감정,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가 만들어진다면 한국인 특유의 심리적 특성을 발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라는 가정에서 검사 개발이 출발하게 된 것이다.

II. 이화방어기제검사의 구성과 특징

이화방어기제검사는 질문지형검사로서 20개의 방어기제척도가 있고 각 척도마다 10개문항, 전체 20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III. 이화방어기제검사의 척도 내용

1. 허세척도 (Show-off : Show-off Scale)

허세척도는 실속보다는 겉꾸밈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분수에 넘치더라도 기왕이면 최고급의 의식주를 추구하며, 자신의 능력에 비해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자인 체, 유식한 체, 잘난 체 행동하면서 실제의 자신보다 더 우월한 자아상을 겉으로 표현한다. 또한 실속보다 겉치레, 외양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내용이 있다.

이 척도에서 스텐점수가 8점 이상으로 나타나는 개인은 허세 행동이 강한 수준에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은 위에서 지적된 허세행동을 보다 강하게 나타낼 것이며, 화려한 외양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 치중하는 반면, 실속이나 내용을 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행동이나 태도를 취할 것이다. 즉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과분한 행동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과시하고, 특히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평가받을 지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타인지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2. 반동형성척도 (Reaction formation : Reac Scale)

반동형성은 용납될 수 없는 충동을 억압하고 그러한 충동과는 반대되는 감정이나 행동을 겉으로 표현하도록 만든다. 속담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다.

반동형성에 의해 나타나는 감정표현이나 행동은 매우 과장되어 있고 상황에 어울리지 않고 부자연스럽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예를 들면 적개심이 겉으로는 지나치게 복종적이거나 상냥하거나 정중한 태도로 표현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척도에서 스텐점수가 8점 이상으로 나타나면 개인은 반동형성기제를 강하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상냥함이나 호의적인 애정표현을 겉으로 하거나, 반대로 부정적인 적대적인 표현을 하거나, 성적으로 지나치게 순결하게 보이려고 하거나 자기비하나 과시를 하

는데, 이러한 행동들이 지나치게 과장되고, 상황에 부적절한 경향이 있을 것이다. 스텐점수가 10점 이상으로 높은 경우는 이와 같은 방어기제가 장기적으로 사용되어 성격으로 고착되어 있는지, 또는 강박적인 신경증적 증상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3. 동일시척도 (Identification : Iden Scale)

동일시척도로는 남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따라서한다. 대상이 마치 나의 분신인 것 같은 일체감을 느낀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존경하는 대상의 힘을 내면화하기 위해 그 대상의 특징, 행동, 가치관을 모방하고, 대상의 이별상황에서 대상을 내면화함으로써 이별의 현실을 방어하고, 공격자와의 동일시를 통하여 공격적 정서가 자신의 통제 하에 있도록 함으로써 두려움을 방어할 수 있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이 척도에서 스텐점수가 8점 이상인 경우, 동일시 방어기제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들은 동일시 방어기제를 통하여 대상관계에서 느껴지는 갈등이나 불안을 방어하는 경향성이 강하며, 이러한 방어기제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의 행동에 따라 강하게 영향을 받고 대상과의 관계가 보다 밀착되어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스텐점수가 10점인 경우, 의존적 인격장애(dependent personality disorder) 또는 경계선 인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스텐점수가 3점 이하로 낮은 경우, 동일시를 통한 대상관계 형성이 매우 낮은 상태로서 외부 현실로부터 철수되어 있는 상태를 의심해 볼 수 있겠다.

4. 수동-공격적 행동척도 (Passive-aggressive behavior : Pass Scale)

이 척도는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수동적 저항으로 표현함으로써 공격적 감정을 처리한다. 이러한 행동으로 실수, 꾸물거리는 행동, 저항적인 묵묵부답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어느 시기까지든 개인 자신보다 상대방에게 자극을 주게 되지만, 나중에는 개인 자신에게 해롭고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본 검사 척도내용은 상대방에게 화가 날 경우 직접 화를 내는 대신, 뒷전에서 일을 훼방 놓거나 골탕 먹이는 심술궂은 행동을 하거나,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고집을 세우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침묵하고, 늦장을 부리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 척도에서 스텐점수가 8점 이상인 경우, 수동-공격적 방어기제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들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는 경우 직접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간접적으로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행동이 지속될 경우, 의도적으로 비능률적인 태도를 취하고 고집을 세우거나 빈둥거리거나 꾸물거리는 태도를 취할 것이다. 이러한 방어기제는 약속이나 지시를 쉽게 잊어버리는 행동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지만, 당장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노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개인의 공격적인 정서를 간접적으로 충족시켜 줄 것이다. 스텐점수가 10점인 경우 수동-공격적 인격장애가 검토될 수 있다.

5. 투사척도 (Projection : Proj Scale)

투사척도는 타인의 반응이나 비난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염려감, 개인 자신의 불행의 원인이 전적으로 타인 잘못 탓이라는 책임전가, 망상적인 경향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개인감정이나 소망, 태도, 성격 특징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고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소망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이러한 감정이나 소망이 자아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비난하거나 경멸할만한 특징을 정작 개인 자신이 소유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투사기제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무의식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되고, 편견, 부당한 의심이나 경계, 오해, 그리고 남에게로의 책임전가, 현실왜곡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투사는 정신증적 상태에서, 특히 망상증후군에서 발견되며 또한 정상상태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기제이다.

이 척도에서 스텐점수가 8점 이상일 때, 투사방어기제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투사방어기제 사용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나 내성적인 태도보다는, 우선 먼저 타인의 잘못이나 타인의 행동을 문제의 결정요인이라고 비난하는 경향성이 높을 것이다. 대인관계 내에서 상대방의 태도를 매우 민감하게 지각하고 상대방의 행동을 오해하거나 왜곡 판단하는 경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개인이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을 타인의 성격이나 행동 가운데서 예민하게 지각하고 이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스텐점수 10점이면 망상적 성격(paranoid personality)이나 망상증이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다.

6. 전치척도 (Displacement : Disp Scale)

원래의 대상에게 느끼는 감정을 그 대상과 유사점이 있는, 그러나 보다 덜 중요하고, 덜 위협적인 다른 대상으로 옮긴다. 이 때 원래의 대상에게 느끼는 감정이나 욕구의 성질이 변화되지 않은 채 대리 대상에게로 옮겨진다. 이와 같이 원래의 대상 대신 대리 대상에게로 감정이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개인이 자각할 수도 있고,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분노감이나 성적욕구가 대리 대상에게 전치되기 쉽다. 전치의 특수한 경우로서, 감정의 지연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는 원래의 상황에서 느꼈던 분노나 슬픔, 이에 동반되는 두려움, 수치감, 죄의식이 시간이 지연된 다음에야 다른 상황에서 느껴지게 된다. 정신치료의 전이, 공포증과 강박증도 전치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 척도에서 스텐점수 8점 이상인 경우, 전치방어기제 사용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표현하지 못하고, 대상을 바꾸거나 시간이 지난 후 다른 상황에서 그러한 감정을 표출하게 되므로 상황에 적절치 못한 감정 방출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상황에 적합지 못한 발산은 부적응적 결과를 초래하고 개인을 좌절에 빠뜨릴 수 있다. 스텐점수가 10점일 경우, 전치방어기제를 지나치게 사용한 결과, 강박증, 공포증과 같은 신경증적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매우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신증적 판단력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고, 따라서 정신증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7. 부정척도 (Denial : Deni Scale)

부정 방어기제는 현실의 고통스런 측면을 인정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사용된다. 억압(repression)과 다르게 이 기제는 외부 현실의 지각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사건 자체에 대한, 그리고 사건이나 경험과 관련되는 감정에 대한 부정이 있다. 보고 들은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경험을 부인하는 것이 부정의 한 예이다. 정상이나 정신증적 상태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자아발달에 따라 현실 판단력이 가화되면서, 정상 성인의 경우는 아동과 다르게 부정을 사용하는 경향성이 줄게 되고, 부정을 사용하더라도 고통스런 현실을 자각하는 동시에 일시적으로,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정도에서 부정을 사용한다. 신경증적 상태에서는 현실을 지각하고는 있으나 마치 그런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 척도에서 스텐점수 8점 이상인 경우, 불쾌한 현실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방어경향성이 강하고, 불쾌한 현실 대신 공상을 통하여 기분 좋은 현실을 일시적으로나마 대체시켜 보려고 시

도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로부터의 도피 경향성이 강하고, 현실과 직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성이 낮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문제해결 능력이나 통찰력이 낮은 대신, 정서적으로는 상당한 안전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스텐점수가 10점과 같이 매우 높은 경우는 신경증적 상태를 넘어선 정신적 상태, 망상을 검토함으로써 현실검증력 장애 여부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8. 통제척도 (Controlling : Cott Scale)

개인이 자신의 불안을 줄이고 내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변 환경에 있는 대상이나 사건을 조정하고 이용하려는 과도한 시도를 한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신의 개인적 성취에 대한 갈등이 있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를 조정함으로써 자신의 갈등을 완화하고 대리 성취하려는 경우가 있다.

이 척도에서 스텐점수가 8점 이상인 경우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주장이 강하고,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주변 사람들을 조정하는 경향성이 강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타인을 간섭하는 경향성도 강할 것이다. 이러한 개인들은 대인관계에서 능동적이고 술선수범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타인에게 지시적이고 자신의 뜻대로 타인을 조정하고 상황을 유도하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력을 보다 강하게 행사하게 될 것이다. 또한 타인의 지시나 강요에는 강하게 저항하고 반발하고, 집단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직접, 간접적인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통제척도에서 스텐점수가 3점 이하일 경우,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타인에게 순응하고 수용적일 가능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

9. 억제척도 (suppression : Supp Scale)

현재 어떤 갈등이나 욕구가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이러한 감정이 적절하게 다루어질 때까지 일단 이에 대한 관심을 보류하고 문제 해결을 지연시킨다. 이는 의식적이거나 반의식적인 결정으로서, 회피나 뚜렷한 동기 없는 나태한 태도와는 구별된다. 예를 들면 보다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그 외의 감정이나 행동을 일단 보류시키고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 적절한 시기가 오면 억제하고 있던 갈등이나 욕구를 다룬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갈등을 감수하면서 행동이나 감정을 보류시킨다.

이 척도에서 스텐점수 8점 이상인 경우는, 문제 상황에 대해 즉각 대처하고 직접 해결하려는 태도보다는 상황판단을 보류하거나 문제해결을 지연하면서 적절한 기회를 기다리는 태도가 강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억제는 의식적인 결정이고 보다 장기적으로 문제 해결을 기대하면서 관망하는 태도라는 의미에서 보다 능동적인 대처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때로는 적절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스텐점수가 10점일 경우 이러한 태도가 매우 강하여, 현실 회피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다.

억제척도에서 스텐점수가 3점 이하인 경우는 어느 정도 의식수준에서 갈등이나 문제를 견디면서 관망하는 경향성이 매우 낮은 상태를 의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나친 충동성이나 퇴행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10. 왜곡척도 (Distortion : Dist Scale)

왜곡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경우, 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부 현실을 왜곡시킨다. 예를 들면 환각, 망상, 특히 과대 망상적 신념, 우울감과 연관되는 망상이 여기에 속한다. 왜곡은 종교적 신념에서와 같이 매우 적응적일 수 있다.

이 척도에서 스텐점수가 8점 이상일 경우는, 자아이미지를 과장되게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

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장된 자아이미지로 자아방어를 하는 경우 대인관계에서 자아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자아에게 유리하고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왜곡방어기제는 일반적으로도 자아도취적이고 현실 왜곡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긍정적으로도 작용할 가능성도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스텐점수가 10점인 경우는 정신분열이나 심한 현실 판단의 왜곡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1. 예견척도 (Anticipation : Anti Scale)

미래의 내적 불편함에 대해 현실적인 예견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걱정스런 결과를 미리 생각해보고 감정적 반응을 예견해 봄으로써, 현실적인 여러 대안 책들을 탐색해 본다.

이 검사의 척도는 1) 미리 상황을 예견하고, 2) 매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3) 장래에 대해 계획성 있게 대처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서 스텐점수가 8점 이상인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신중한 판단을 내린 다음 일을 처리해 나가고, 매사에 조심스럽게 대처하고, 미리 예견해보는 경향성이 강할 것이다. 이에 따라 매우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결정을 바탕으로 하여 충동적인 결정에 따른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행동이 억제되는 경향성이 있고 지나치게 조심스런 태도 때문에 쉽게 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현실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회피해 가는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스텐점수가 8점 이상인 경우는 현실 회피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스텐점수가 10점일 경우는 강박적인 성격이나 강박신경증을 유의해 볼 수 있다.

이 척도에서 스텐점수가 3점 이하이면, 미리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보다 신중하나 대처 행동이 매우 낮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려성이 매우 낮거나 신중한 대비행동이 매우 낮은 경우, 또는 지나치게 경솔하고 충동적인 무계획적인 경우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2. 합리화 척도 (Rationalization : Rapt Scale)

합리화기제는 용납하기 어려운 개인 자신의 태도, 신념, 또는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실제로는 행동이 그런 정당한 동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동기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용납될 수 있는 동기만을 선택하여 개인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가 정당한 것인 양 나타내고자 한다. 이런 방식에 의해 개인의 행동결정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중심적인 동기는 감추어지고, 합리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는 동기만이 노출되고 의식화된다. 이에 따라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가 정당한 것인 양 느껴지게 된다.

이 척도에서 스텐점수가 8점 이상인 경우, 합리화 방어기제 사용이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함으로써 상당한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나, 이를 바탕으로 한 행동의 변화를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합리화 방어기제는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으로써 진정한 자아 모습을 직면하지 못하고 이를 회피한다는 대가를 치르지만, 방어기제로서의 효과는 상당하기 때문에, 스텐점수 10점으로 매우 강한 합리화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개인은 심리적인 갈등을 거의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3. 해리척도 (Dissociation : Diss Scale)

감정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개인의 인격이나 자아정체감, 일시적이지만 극적인 의식

(consciousness)의 변형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감정적인 고통을 주는 인격부분이 해리에 의해 제거되고 개인의 통제를 벗어나 정상적인 의식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인격으로 기능한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히스테리성 전환반응, 개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일시적으로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포함된다.

이 척도에서 스텐점수 8점 이상인 경우 해리 방어기제가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해리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의 통제력을 벗어나서 억압되어 있던 감정이나 인격의 일부 요소가 일시적인 행동화 과정을 통하여 밖으로 표출된다고 볼 수 있다. 스텐점수 10점과 같이 심한 해리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히스테리성 인격의 경향성, 또는 히스테리성 인격 장애, 해리성 장애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4. 신체화 척도 (Somatization : Soma Scale)

신체화 척도는 심리적인 갈등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전환됨으로써 신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와 연관된다. 이러한 경향성이 있는 개인은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에 처하여 반복하여 신체적인 증상을 나타내면서 심리적인 갈등은 회피하는 반응을 보인다.

이 척도에서 스텐점수 8점 이상인 경우는 신체화 방어기제의 사용이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개인은 갈등장면에서 회피하면서 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행동을 취한다. 그리고 즉각적인 충족을 원하지만, 목표달성이나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은 피한다. 대인 관계에서는 의존적이고 동정과 관심을 끌고자 자기 과시적인 행동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체화 방어기제는 개인이 갈등장면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장된 호소로서, 일종의 소극적인 행동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스텐점수 10점으로 신체화 방어기제가 매우 높은 경우는 신체화 장애, 전환성장애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히스테리성 인격특징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15. 승화척도 (Sublimation : Subl Scale)

원초적이며 용납될 수 없는 충동을 억제하는데 사용되던 에너지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출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욕구는 억제되지 않고 방출되고 충족되지만, 욕구의 대상과 목적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예를 들면 개인의 원초적인 욕구가 예술, 문학, 종교, 과학 등 직업 활동으로 표현되거나 공격성의 경우는 오락이나 운동, 취미로 표현된다. 심리적 갈등과 깊은 관계가 있는 승화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이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 척도에서 스텐점수가 8점 이상인 경우, 승화방어기제 사용이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개인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나 대상에게 향한 생산적인 작업을 통하여 내적인 욕구나 갈등을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이에 따라 갈등 해결이나 욕구 충족이 보다 생산적이고 적응적인 방향에서 간접적으로 성취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아방어기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은 보다 능동적이고 자아를 보다 확대시키고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승화방어기제는 성숙한 수준의 방어기제로 알려져 있다. 이 척도에서 스텐점수가 3점보다 낮으면 적극적으로 갈등을 승화하는 경향성이 낮은 경우이거나 또는 이러한 승화능력이 매우 제한된 경우인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16. 행동화 척도 (Acting out : Acti Scale)

행동화 이후에 나타날 부정적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무의식적인 욕구나 소망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충족시킨다. 이 때 행동은 개인의 통제를 벗어난 충동적인 수준에서 일어난다. 행동화

는 욕구지연에 뒤따르는 긴장을 피하게 해주는 대신, 부정적인 결과가 뒤따르게 된다. 예를 들면 비행, 충동적인 욕구 발산, 긴장완화를 위한 상습적 약물복용, 자해적인 행위, 지나친 과식 등이 있다.

이 척도에서 스텐점수가 8-9점 사이에 있는 경우는 행동화 방어기제를 어느 정도 강하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감정을 통제하고 견디는데 따르는 긴장을 이기지 못하여 즉각적으로 행동을 통해 감정을 발산한다. 본 검사 문항 내용이 주로 분노 감정의 행동화를 다루고 있으므로 스텐점수가 10점인 경우는 보다 장기적인 행동화 경향성, 반사회적 인격 장애, 행동화 경향성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로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무기력한 상태가 아닌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7. 이타주의 척도 (Altruism : Altr Scale)

이 방어기제에 의하여 개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건설적인 봉사를 통하여 개인적인 만족감을 얻고 충족적인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방어기제가 사용되고 있다고 평가되자면, 이타적인 행동을 통하여 대리적인 충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기제를 통하여 개인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나 또는 스스로에 의해서 감정적인 충족을 느끼게 된다. 이 때 개인은 자신의 욕구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동 기저의 감정을 알고 있다.

이 척도에서 스텐점수가 8-9점 사이에 있는 경우, 이타주의 방어기제를 높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타인을 돕는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을 통하여 직접적인 욕구충족이 아닌 대리적인 충족을 느끼는 경향성이 높을 것이다. 스텐점수가 10점인 경우는 이러한 이타적인 방어기제가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타주의 척도는 어떤 다른 척도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방어적인 태도나 남에게 모범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동기에 의해 이 척도 점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스텐점수가 다소 높거나 매우 높은 경우는 이와 같은 방어적 태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타주의 척도에서 스텐점수가 3점 이하이면, 이타주의적인 태도나 행동이 매우 낮은 경우를 검토해 볼 수 있다.

18. 퇴행척도 (Regression : Regr Scale)

퇴행이란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갈등이나 좌절을 현재의 연령수준에 알맞은 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보다 나이 어린 시기에 의존하였던 방식으로 되돌아가서 미성숙한 적응 행동을 취하는 방식이다. 정상적인 퇴행과 비정상적인 퇴행이 모두 가능한데 긴장이완, 수면, 성적 극치에서의 퇴행은 정상적인 것이며, 이는 신체적, 정서적 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퇴행은 창조적 과정에 따르는 부수적 현상일 수 있다. 비정상적인 퇴행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심한 퇴행으로 자아 자체가 퇴행됨으로써 심하게 자아가 붕괴된다.

이 척도에서 스텐점수 8-9점 사이에 있는 경우는, 갈등에 직면하여 퇴행 기제를 강하게 사용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연령수준에 알맞은 성숙한 방식보다는 미성숙하게 무기력한 방식으로 갈등에 대처하는 경향성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퇴행이 보다 강한 수준에 있다 하더라도 퇴행 상태에서부터 원래의 성숙 수준으로 복귀 정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퇴행척도에서 높은 스텐점수를 보일 경우, 퇴행 후의 적응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만약 빈번하고 강한 퇴행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심리적 성숙수준으로 보다 쉽게 되돌아갈 수 있다면, 퇴행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퇴행척도에서 스텐점수 10점을

보이는 경우는 정신분열증이나 보다 심한 정신증적 상태인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퇴행 기제가 스텐점수 3점 이하이면, 지나치게 퇴행이 어려운 경우, 즉 정상적인 일시적인 퇴행조차 어려운 지나친 완벽주의나 성격적인 엄격성, 완고성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19. 유머척도 (Humor : Humo Scale)

이 방어기제는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자극을 주지 않고 개인에게도 불편감을 주지 않으면서 해결해야 할 갈등에 관한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이 직면하기 어려운 고통스런 문제를 직면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타인에게도 전달해 준다. 이러한 유머는 어느 정도의 "관찰적인 자아요소" 없이는 사용되기 어렵다.

이 척도에서 스텐점수가 8점 이상일 경우 유머 기제를 강하게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갈등이나 불안, 고통의 상황에서 유머를 통하여 이런 상황을 견디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유머 방어기제는 일반적으로 성숙한 방어기제에 속한다고 알려지고 있고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상당한 정도의 자아관찰력과 자아강도가 요구되므로, 유머 척도에서 강한 점수를 보이는 개인은 강한 자아강도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유머척도가 스텐점수 3점 이하인 경우는 유머 기제가 매우 낮거나 그러한 방어기제 사용능력이 매우 제한된 성격적 미숙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0. 회피척도 (Evasion : Evas Scale)

회피척도는 비교적 의식적인 반응철화라는 점에서는 억제와 유사하지만, 억제와 같은 인내심 있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가 아니라 도피하고자 하는 소극적인 동기에 따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본 검사의 회피척도는 갈등 상황이나 문제 상황을 무조건 도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고, 이러한 동기에 따라 문제 상황을 도피하고 외적인 상황에 순응하고, 문제해결을 체념하는 행동 방식을 나타낸다.

이 척도에서 스텐점수가 8-9점인 경우,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문제 상황에 대해 매우 수동적으로 도피하는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갈등직면과 문제해결에 따른 불안은 줄어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 해결이 방치되고 누적되고, 이로 인하여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자신감이 상실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스텐점수가 10점으로 높은 경우에는 회피성 인격 장애, 정신분열증 인격 장애를 검토해 볼 수 있다.